

Uniroyal - BF Goodrich 合作

美國의 제 2 타이어 메이커로 浮上

協 會 金 民

1. 概 要

美國의 타이어 메이커인 Uniroyal 社와 BF Goodrich 社는 각각 그들의 타이어 事業部門을 合併하여 새로운 『Uniroyal-Goodrich Tire Co.』를 設立함으로써 北美 타이어市場(新車用 및 交換用)에서 제 2의 타이어 메이커로 浮上하게 되었다.

지난 1月28日 發表된 同 Uniroyal-Goodrich 社는 앞으로 母會社와 系列 타이어業體間的 統合을 擴大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. 따라서 만일 反트러스트法 抵触與否檢討나 最終合意書를 만드는 과정에서 별문제만 없다면 오는 7月까지는 9個의 타이어工場, 2個의 合成 고무工場, 4個의 텍스타일工場 등 總 20억달러 規模의 企業이 北美에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. 母會社 重役의 말에 의하면 50 : 50 比率의 同合作會社는 여타 業體들, 특히 輸入商들과 강력한 競爭 力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.

또한 이번 統合으로 인하여 BFG는 化學 및 PVC(플라스틱) 專門業體가 될 것이고 Uniroyal은 그들의 化學事業은 處分하고 엔지니어링 및 動力伝達製品 메이커로 變身하게 될 것이다.

다음에는 Uniroyal과 BFG가 어떤 式으로 合作會社를 만들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.

• Uniroyal-Goodrich Tire Co.는 新車用 및 交換用타이어市場에서 販賣할 乘用車用 및 輕트럭用 Radial 타이어를 주로 生産한다.



新會社의 會長 兼 CEO로 就任하는 Patrick C. Ross 氏

• 同社의 年間賣出額은 約 20억달러로, 北美市場에서 約 18%를 장악함으로써 Firestone을 앞질러 北美市場에서는 Goodyear 다음가는 제 2의 타이어 메이커로 된다.

• 同社의 本部는 Akron에 있는 BFG의 壘地를 賃貸하여 設立하는 한편, 미시간州 Troy (Detroit 近郊)에 있는 Uniroyal의 新車用타이어本部와 研究開發部는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.

• Uniroyal-Goodrich 社의 財産純粹價格(담보, 과세 등을 뺀 가격)은 約 5억달러 以上되며, 또 約 2억4,500萬달러의 年金債務과 타이어産業과 관련된 約 9,000萬 달러의 負債를 지고 있다. 따라서 同社에서는 母企業間的 相互負擔으로 約 4억달러를 起債하기로 한다.

• 兩個社의 모든 組織網은 그대로 存続한다.
• 新會社의 會長 兼 最高經營責任者(CEO)*에

는 Goodrich社의 Patrick C. Ross社長이, 副會長 兼 首席經營者에는 Uniroyal 그룹의 타이어 担当 副社長인 Sheldon R. Salzman이 각각 就任하고 또 社長에는 Goodrich 타이어部門 社長인 Robert A. Eisentrout, 副社長에는 Uniroyal의 타이어 販賣担当 副社長인 Stewart N. Smith가 각각 就任한다.

2. 展 望

Uniroyal과 Goodrich의 任員들은 이와같은 企業合作이 成功的이고도 合理的인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며, 또한 새 會社야말로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를 需要減少 및 稼働率低下 등으로 타이어業界가 격어야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財政的, 技術的 競爭力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.

合同記者會見에서 BFG의 John D. Ong會長과 Uniroyal의 Joseph P. Flannery會長은 交換용 타이어市場에서의 BFG의 販賣能力과 新車용 타이어市場에서는 Uniroyal이 두번째로 큰 業體라는 事實을 強調하였다. 또한 Ong會長은 말하기를 “이 合作會社를 잘 만든 것에 대해서는 疑問의 여지가 없다”고 하였다.

이들 두 會社의 타이어事業 經營成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Uniroyal은 1984년에 主要業體들 중에서 가장 좋았으며, 또 이 두 會社는 獨自의으로도 拮据한만한 競爭力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는 또 말하기를 “그러나, 兩個會社가 건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統合이 戰略上 必要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” 그리고 “現在 市場세어를 約 25%나 장악하고 있는 輸入타이어의 壓力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供給物量이 充分해야 하고 따라서 이렇게 統合함으로써 매우 어려운 市場環境에서 競爭能力을 가질 수가 있다”고 하였다.

Uniroyal의 Flannery會長은 Uniroyal-Goodrich는 每年 約 1억 달러씩 增資할 것이라고 하였으며, 또 BFG와 Uniroyal은 合作의 價値를 각각 認識하고 지난 7월부터 協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會社에서는 Uniroyal의 타이

어事業을 引受하는데 아무런 關心도 갖지 않았었다”고 하였다. 이 統合이 BFG가 다시 新車용市場으로 進出하는 것을 의미하느냐는 質問에 對해서는 Flannery會長은 “本人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市場에도 우리는 有利하게 뛰어들 수 있다고 본다”고 하였다. Goodrich는 新車용타이어市場은 採算性이 없다는 이유로 1981년에 손을 뺐었다.

Goodrich의 Ross社長은 Goodrich가 新車용 타이어市場에서 손을 뺐 當時 同社는 Detroit의 新車용 타이어市場에서의 占有率이 단지 7~8%에 不過했고, Uniroyal은 約 24%였다고 했다. 그러나 이제는 統合함으로써 過去에 없었던 더 큰 經濟的 基盤을 구축하게 되었고, 따라서 新車용타이어 販賣에서도 많은 利益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. Ross社長은 또 同統合으로 兩個社 중 어느 하나의 타이어生産 라인이 閉鎖되는 것에 대해서는 否認하고 있으며, 統合이 完全히 끝날 때까지는 現在 Goodrich와 Uniroyal의 市場占有率이 각각 4.5%, 3.5%로 推定되고 있는 交換용타이어市場에서는 競爭者로서 그대로 持続한다고 強調하였다.

Uniroyal그룹의 Salzman 副社長은 두 會社가 統合하게 되면 技術部門이 改善될 것이므로 交換용타이어 需要者들은 덕을 보게 될 것이며, 타이어 專門商인과 代理店들이 우리와 需要者를 연결해 주는 主要役割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. 또 새 會社에서는 그들이 다같이 成功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製品을 供給하고 또 마케팅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. 그는 또 同統合으로 인하여 從業員은 일부 解雇될지 모르지만 閉鎖되는 工場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.

兩個會社의 重役들은 統合으로 인하여 一般管理費가 많이 節減될 수 있다는 것을 強調하였고, Ross社長은 두 會社의 合作關係는 이미 兩個社에서 決議하였지만 아직도 細部的인 事項은 많이 남아있다고 하였다.

*CEO : Chief Executive Officer
(最高經營責任者)